면역체계 이상 질환…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 중요

건강 바로 알기
아토피피부염 표적 치료

이 승 철
이승철피부과 원장

2020년 환자 수 100만 명 육박
병력·중증도 등에 맞는 치료해야
원인 물질 찾아 선택적 차단
경구용 표적치료제 효과 좋아

아토피피부염은 단순한 피부질환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지켜보는 환자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실제로 아토피를 앓고 있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낸다. 쾌활하고 공부도 곧잘 하던 딸이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심해진 아토피는 딸을 대인기피증과 함께 밖에 나가도 땅만 보고 걷는 아이로 만들어 버렸다. 또 한창 사회활동을 해야 할 30대 환자 한 명은 아토피에 대한 잘못된 주변 인식으로 인해 기피와 외면을 당해야 했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결혼도 포기했고,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환자 가족까지 짊어져야 하는 고통=가려움과 상처 부위의 통증, 이에 따른 지속적인 수면 부족은 아토피 환자에게 흔한 일상이지만 그보다 더욱 환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쳐 그 고통을 본인과 그 가족이 함께 짊어진다는 데 있다.

이렇듯 아토피피부염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충이 큰 것은 물론, 환자 수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아토피피부염 환자 수는 97만 2928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한다. 더불어, 소아기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소아기 환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생활을 활발히 해야 할 성인 환자도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

아토피피부염은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피부질환이 아니라, 신체 면역체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초기에는 주로 가려움증이 심한 홍반성 구진과 수포가 발생하고, 긁게 되면 진물이 나오는 삼출성 병변으로 변한다. 이 때 이차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도 흔하다. 더 진행이 되면 찰상, 인설(피부에서 떨어진 가루)이 덮인 구진 등이 발생하며, 만성화되면 피부가 두껍게 되는 태선화 현상이 일어난다.

불편함이 크지 않은 경증부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인 중증까지 환자마다 다양한 증상을 보이므로, 환자의 병력, 병변 범위, 중증도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상태에 맞는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표적 치료제, 하루 한번 먹는 경구제=치료 시에는 꾸준한 보습제 사용을 통해 피부 보습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악화 요인을 살펴 가능한 피하는 것이 기본이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초기 치료에는 국소 스테로이드제, 국소 면역조절제와 함께 가려움증 조절을 위한 항히스타민제를 주로 사용한다. 이 같은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중등증 이상으로 증상이 심한 환자는 전신 스테로이드제, 전신 면역억제제 등의 전신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전신 치료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작용 우려도 커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도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아토피피부염 증상의 원인 물질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JAK 억제제와 같은 표적 치료제들도 등장해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기존 주사제가 아닌 하루 한번 먹는 경구제라는 점도 환자들의 부담과 심적인 무게를 줄여주는 요인이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투약 이후 빠르게 증상이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다.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한 반복적인 염증은 피부 장벽 기능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염증과 재발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부른다. 더불어, 아토피피부염은 치료를 하면 호전되고,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만성 질환이고, 아직까지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이유로 환자가 열심히 치료를 받다가 지쳐서 포기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에 의존하다가 증상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이승철피부과 원장이 심한 가려움으로 인해 수면 부족까지 호소하는 여성을 진료하고 있다.

최근 기존보다 빠르고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환자들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꼭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본인의 상태에 맞는 의학적 치료를 받기 바란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최신형 4세대 다빈치 Xi 로봇수술 첫 시행

위암 환자 절제·문합술 성공
초고화질 3차원 입체영상 등 기능
통증·출혈 적고 흉터·합병증 줄어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종)은 지난 2월 도입한 첨단 로봇수술 장비인 '최신형 4세대 다빈치 Xi'로 시행한 첫 로봇수술에 성공했다.

류성엽 조선대병원 외과장은 지난 1일 50대 여성 환자의 위에 발생한 암을 다빈치 Xi를 이용해 원위절제술 및 위-공장 문합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했다.

로봇 수술이란 환자의 환부에 절개 없이 작은 구멍만 낸 뒤, 집도의가 조정부스에서 원격으로 로봇팔을 조정해 삽입하고 수술하는 최소침습수술을 말한다.

이는 정교하고 복잡한 고난이도 암 수술에 주로 사용되며, 피부 절개를 최소화해 통증과 출혈이 적고 흉터 및 합병증 발생률이 줄어 환자의 빠른 회복과 향상된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류 외과장은 "최신형 4세대 다빈치 Xi 로봇의 넓어진 시야각과 초고화질 3차원 입체영상 및 경량화된 4개의 로봇팔 등의 발전된 기능들이 더해져 위암을 안전하고 정교하게 치료할 수 있었다"며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성엽 조선대병원 외과장이 '다빈치 Xi'로 로봇수술을 하고 있다.

김유석 로봇수술센터장은 "광주 최초로 4세대 다빈치 Xi 로봇수술기 도입으로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역을 선도하는 로봇수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개소한 조선대병원 로봇수술센터는 고난이도 수술 경험이 많은 우수한 실력을 갖춘 각 진료과 교수들과 로봇수술전담간호사, 로봇수술상담 코디네이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아토피 목욕 미지근한 물에 10분 내외로
순면 소재→피부에 자극 없는 옷 착용을

예방관리수칙 14년만에 개정

질병관리청이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의 올바른 예방·관리법을 안내하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을 14년 만에 개정했다.

이 수칙은 지난 2008년 제정한 것을 최신 근거와 변화한 사회환경을 반영해 새롭게 다듬은 것이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피부과학회,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등 5개 전문학회·협회가 공동으로 제정에 참여했다.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3개 질환의 공통 수칙은 질환 악화 요인에 대한 정확한 검사·진단을 받고,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아토피 피부염은 보습과 피부 관리가 중요하다. 이전까지는 목욕을 매일 미지근한 물에 20분 이내로 하라고 돼 있었지만, 10분 내외로 하는 것으로 수칙이 바뀌었다. 비누목욕을 2~3일에 한 번 하라는 내용은 약산성 물비누로 매일 목욕하라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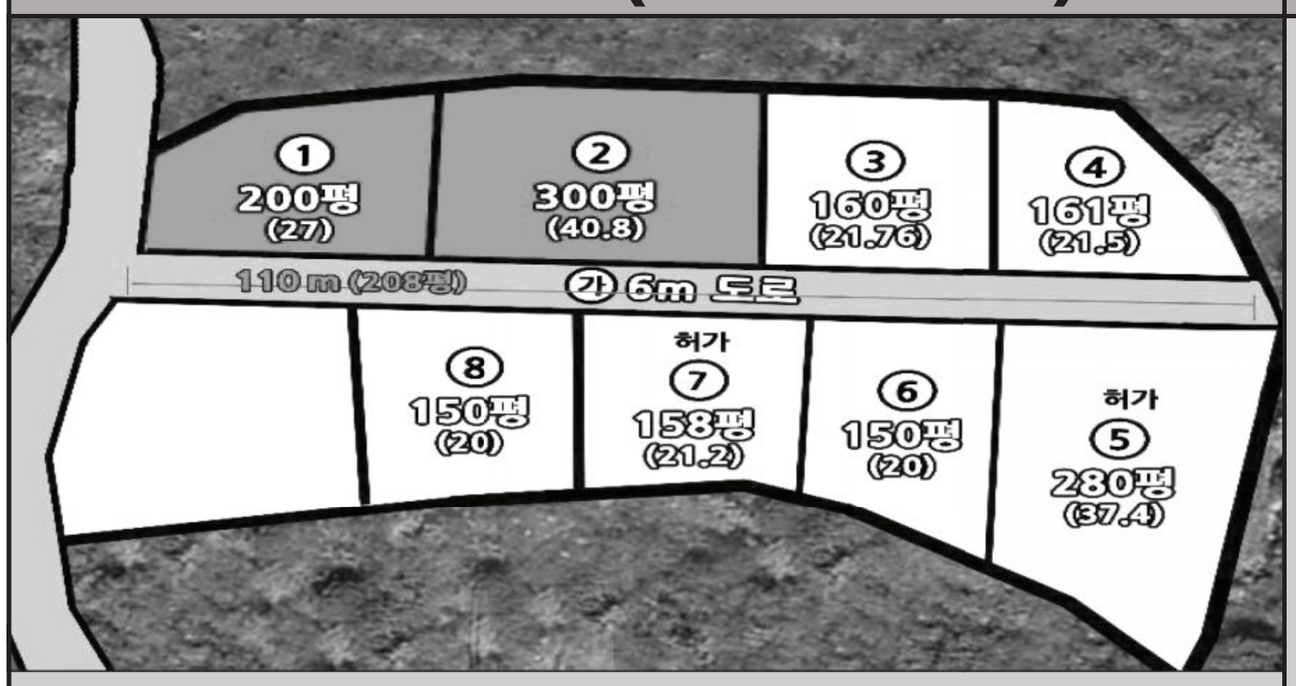
순면 소재 옷을 입으라는 수칙은 피부에 자극이 없는 옷을 입으라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또 정확히 알레르기로 진단된 식품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수칙에서는 실내를 청결히 유지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내용이 공통으로 들어간다. 금연하고, 간접흡연도 최대한 피하라는 것과 손 씻기를 강조하는 내용도 공통적이다.

천식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칙이 다듬어졌다. 질병청은 개정된 예방관리수칙별로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ae@kwangju.co.kr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북구 신안동(다세대빌라)▶감정가 3억9천 -> 1억7천 (3/23)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2억5천 (4/14)
	광산구 덕림동(임야)▶ 감정가 21억 -> 15억 (4/15)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4천 (4/15)
	동구 지산동(임야)▶감정가 19억 -> 13억 (4/22)
	광산구 하남동(주택)▶감정가 7억8천 -> 5억5천 (4/22)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감정가 95억 -> 42억 (4/26)
전남	화순군 도곡면(임야)▶ 감정가 7천 -> 7천(3/3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2억5천 (4/6)
	나주시 빛가람동(주차장)▶ 감정가 17억 -> 12억 (4/11)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38억 (4/11)
시외	경기도 수원시(근린주택)▶감정가 15억 -> 7억4천 (3/31)
	경북 경주시(다가구원룸)▶감정가 15억 -> 5억4천(4/5)

010-6670-9800